율곡의 「심성정도」와 퇴계의 「심통성정도」 비교연구

장민(북경대학)

10세기 전후에 고려왕조가 과거제를 세우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경로를 통하여 점점 정치무대에 등장하였다. 여말선초의 왕조교체에 따라 성리학은 순조롭게 조선시대의 국학이 되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는 이퇴계(1501-1570)와 이율곡(1546-1584)을 대표로 하는 조선성리학이론이 크게 발전하여 조선유학의 독특한 사상적 특징을 충분히 드러냈다. 誠을 주로 하여 외적으로 經世濟民의 실학적 특징에 치중한 율곡철학, 敬을 주로 하여 내적으로 성인이 되는 수양의 특징에 치중한 퇴계사상, 이 둘은 상호 빛나서 조선성리학 이론체계를 지탱하는 틀로서 조선유학계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되는 두 봉우리로 칭송되었다.

율곡은 『논어』가 도에 들어가는 책이요, 『대학』은 도를 밝히는 책이요, 『맹자』는 도를 지키는 책이요, 『중용』은 도를 전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대학』이론을 강상으로 하고 『중용』사상을 강령으로 하여 그의 철학사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선성리학이론을 완성시키는데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 율곡 학문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인 '心性情意說'은 조선의 사단칠정논변의 배경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선 전기의 이퇴계 사상을 보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율곡의 「심성정도」와 이퇴계의 「심통성정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두 사람 심성론의 차이와 조선유학 심성론의 특징을 탐구하려고 한다.

결론

원시유학에서 송명이학에 이르면서 도통은 새로운 계승과 발전을 이루었다. 원시유학은 親親五倫을 중시하였는데, 송명이학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사람을 가정관계 속에서 천하의 사람으로 일반화시켰는데,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천지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70]라는 명제의 발생이다. '만물일체'의 명제는 자기중심을 뛰어넘어 인류중심으로 상승하여 원시유학이 고양하는 인문가치에 더욱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하였다. 가치관에서 이학은 天과 人의 조화통일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정주 '성즉리'의 관념이 확립된 이후에는 천인관계가 더 이상 사람과 자연이라는 의미의 실천과정이 아니라 天과 人의 통일이 정신경지의 측면으로 제한되었다. 만물일체의 명제에서 세워진 '천인합일'의 정신경지 속에서 마음수양의 평정이 '천명을 제어하여 이용하는' 실천적인 격정(激情)으로 대체되었다. 이학이 점점 주체적인 내적 수양으로 치우쳐서 주체적 역량의 외적인 전개가 소홀해졌다.

조선성리학의 대표학자인 이퇴계는 '해동의 주자'가 되어 조선의 이학을 집대성하여 이학의 핵심사상을 모두 그의 『성학십도』속에 조금의 손색없이 녹여 놓았다. 그는 성인을 이학의 이상적 가치를 체현하는 최고의 본보기요 현실에 체현되는 이상적 인격으로 보고서 완벽하게 성인이 되는 방안을 설명하고 성인에 도달하는 노선을 만들었다. 조선 중기에 이퇴계를 대표로 하는 조선주자학은 조선학계의 절대권위를 가진 유일한 정통학파가 되어 주자학과 퇴계학 이외의 학문은 모두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조선후기에 학술계가 극도로 봉쇄되는 분위기 하에서 조선의 이학은 점점 경직되어 마땅히 있어야 할 활력을 잃어버려 사회변혁을 제공하는 새로운 이론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율곡은 "도를 전한 공로가 공자.맹자.정자.주자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또 "공자는 일찍이 맹자.주돈이.정자.장재.주자가 궁구할 것을 생각하여 그 도를 전하였는데, 후세에는 곤궁하여 도가 행해지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정주 이후에 그 도가 다하여 행해지지 못한 원인을 추궁하자, 율곡은 그것이 도통의 유포과정에서 窮理와 行道가 어긋나서 그 도통이 철저히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도학이 전해지지 못한 것은 虛와 實, 學과 用의 심각한 부조화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곡은 이전 성인의 이론적 기

[70] 『중용장구』제1장, "蓋天地萬物本吾一體."

초 위에서 그 도학을 완전하게 개발하여 氣發理乘, 心性情意, 人心道心相爲終始, 창업.수성.갱장설 등의 이론을 논술하고 아울러 그 이론을 사회실천에 부치는데 노력하였다. 율곡은 性情意의 '경계'를 '修道之謂敎'의 각 단계로 보았다. '一路에 각각 경계가 있다'거나 '一心에 각각 경계가 있다'는 것은 심성수양의 未發.已發.當發의 각 단계와 性情意의 각 경계에 모두 각각의 작용과 내재적 연속성이 있으니 하나로 치우쳐서는 안되고, 서로 분리되어도 안되며, 서로 제한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大本을 세우고 達道를 행하는 것은 '養內'와 '養外'가 서로 통일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율곡은 이 때문에 內聖과 外王의 도를 개척하여 天人이 관통하고 인심도심이 융통하는 실천 속에서 창업.수성.갱장의 길을 개척하였다.

율곡과 퇴계의 「심성정도」와 「심통성정도」속의 성리학 핵심사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율곡과 퇴계가 35세나 차이가 나고 두 분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 달라서 성리학의 견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퇴계의 노선이 조선조 수성기의 수성이론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율곡의 노선은 마땅히 조선조 갱장기의 갱장이론의 정수(精髓)이다. 두 분 사상의 대가가 서로 보완하여 조선성리학 이론체계의 틀을 형성하였다.